

알록달록 도시재생... 발산마을 청년가게들 개업 축제

22~24일 청춘발산마을 페스티벌

갤러리 '아우라팩토리' 아트상품 판매 '발산상회'

아트카페 '표류' 프라모델 조립 '오타쿠연구소'도

발산광장서 인디 공연에 미니카레이싱 대결

도시재생 포럼·플리마켓 열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



광주시 서구 양동 발산마을에 문을 연 카페 '발산상회'. <공공미술 프리즘 제곱>

점점 사람들이 빠져나가며 쇠퇴해 가던 부산 감천문화마을과 통영 동피랑마을은 문화예술이 접목되며 다시 활성화된 대표사례다. 도심속 낙후지역이었던 광주 발산마을(서구 양3동)도 지난 2015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조문화마을 조성 사업'에 선정되며 '예쁜 마을'로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골목길 곳곳에 그려진 벽화를 비롯해 알록달록하게 색칠된 집들은 젊은 층들에게 사진찍기 좋은 장소로 인기가 높다.

최근에는 눈으로만 즐기던 발산마을에 지역 청년들이 마을과 입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발산광장 인근에 자리잡은 '아우라팩토리'는 지역작가 작품 전시와 함께 부담없는 가격으로 아트액자를 판매한다.

옛 동네주민들이 자주 들렀던 구멍가게는 '발산상회'로 다시 태어났다. 오래된 분위기를 콘셉트로 아트상품을 판매하고 각종 차도 마실 수 있다. 옥상도 개방해 전망방직 일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발산상회에서 조금만 발걸음을 옮기면 가정집을 리모델링한 카페 '표류'가 나온다. 조각, 회화 등 미술품으로 내부를 꾸미고 외부에는 문짝을 활용한 테이블 등을 놓아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마을주민이 운영하는 'FLONG'은 마을에 처음 생긴 디저트카페다. 지친 다리를 쉬면서 직접 구운 빵과 달달한 디저트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소다.

또 인디뮤지션이 운영하는 카페 '여기는오아시시아'에서는 음악과 함께 마을주민들이 담긴 매실청 등 건강음료를 선보인다. 바로 옆에는 마을 사랑방 역할을 했던 청춘빌리지 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월~목요일 떡볶이, 삼투튀김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 '주부9단', 금·일요일에는 고추장 삼겹살 정식, 간장계란밥 등 혼밥족을 위한 식당 '진지'로 변신한다.

키덜트를 위한 '오타쿠연구소'도 눈에 띈다. 오타쿠를 자칭하는 정다운 작가가 운영하는 이곳은 프라모델 조립공간을 무료로 공유하고 수제 초상화도 그려주며 미니카 레이싱도 벌일 수 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발산마을 모든 청년 공간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자리를 마련한다. 그랜드오픈을 기념해 '청춘발산마을 페스티벌'이 열린다. 이번 행사는 청년과 마을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고 창조경제혁신센터, 현대자동차, 기아차 광주공장, 광주시, 공공미술 프리즘이 후원한다.

축제기간 마을 전체에 즐길거리가 가득하다. 발산광장에서는 각종 인디공연이 펼쳐지고 비눗방울 퍼포먼스, 미니카레이싱 대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각종 수제 공예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발산상회'도 함께 열리며 발산상회와 아우라팩토리에서도 아트상품을 준비한다. 컬러108계단, 벽화 등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은 '여기는오아시시아' 카페에서 저렴하게 출력해 가져갈 수 있다.

발산마을 조입에 자리한 데블스하우스에서는 마을주민들이 촬영한 발산마을 모습을 전시하고 뽕뽕브릿지에서는 24일 오후 4시 독립영화를 선보이는 마을극장을 운영한다. 먹을거리도 풍성하다. '표류', '주부9단' 등이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을 장만에 손님맞이 체비를 하고 있다.

22일 열리는 그랜드 오픈 기념식은 오전 9시30분 발산광장에서 성과보고, '도시 재생관점에서 본 발산마을 발표'(장대철 카이스트 교수), 입주청년팀 소개·투어, 포럼, 각종 체험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포럼(오후 2~4시 뽕뽕브릿지)은 '청춘발산마을을 통해 새로운 도시재생을 이야기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유대희 공공미술프리즘 대표의 '청춘발산마을 사례를 통한 도시재생'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도시재생 방향을 찾아'(유영국·이영범·정경은 교수), '새로운 도시재생을 이야기하다'(김



발산마을 108계단 위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



인디음악 공연과 차를 판매하는 '여기는오아시시아'.

재철 광주시 참여혁신단장, 전교필 대인예술시장 총감독) 발제가 이어진다.

홈페이지(www.balsanvillage.com) 참조. 문의 070-4910-0339.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32바퀴 턴·고난도 점프...클래식 발레 진수 느껴보세요

광주시립발레단 '돈키호테' 공연

22~23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열정적인 스페인의 풍경, 다채로운 전통 민속춤과 흥겨운 음악, 화려한 무대와 의상.

클래식 발레 '돈키호테'를 돋보이게하는 장치는 여러가지다. 무엇보다 결혼식 신에서 선보이는 여주인공 키트리 32바퀴 연속 회전은 관객이 가장 기다리는 순간이자, 환호가 터지는 장면이다. 상대역 바질의 고난도 점프 역시 마찬가지다. '돈키호테'는 무용수의 테크닉을 볼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작품 중 하나다.

광주시립발레단이 '돈키호테'를 무대에 올린다. 22~23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스페인 극작가 세르반테스의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한 '돈키호테'는 루드비히 민쿠스의 스페인풍 경쾌한 음악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마리오스 프티파의 안무로 1869년 러시아 볼쇼이 극장에서 초연한 이래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희극발레로 시립발레단은 ABT발레단의 미하일 바리쉬니코프 버전을 공연한다. 시립발레단은 1990년 초연 후 여러 차례 무대에 올려왔다.

소설 '돈키호테' 중 여관집 딸팔랑이 키트리와



가난한 이발사 바질의 사랑 부분을 무용으로 구성한 발레 '돈키호테'는 모두 3막으로 구성돼 있다.

여관 주인 로렌조는 딸 키트리를 명칭이 부자 귀족 카마초와 결혼시키려 하지만 키트리는 이미 가난한 바질과 사랑에 빠져있다. 몰래 도망친 두 사람은 숲한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돈키호테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설득, 결혼식을 올린다.

작품은 낭만과 정열이 녹아있는 무대와 화려한 의상이 돋보이며 남성이 넘치는 투우사의 춤, 화

려한 플라멩코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여주인공 키트리 역으로는 신승현, 전진미씨가 출연하며 바질 역은 불가리아 출신 보그단 플로리누, 몽고 출신 절반보 단원이 맡았다. 에스빠다 역의 김주연, 돈키호테 역의 송성호 등 단원들이 출연하며 시립발레단 오운환 지도위원이 재단무했다.

티켓 가격 3만원, 2만원, 1만원(학생 50% 할인) 문화회관 홈페이지(gjart.gwangju.go.kr)에매. 문의 062-522-8716. /김미은기자 mekim@

제자 19명 '금봉의 맥' 세 번째 기획전

30일까지 금봉미술관

광주시 북구 시화마을에 자리한 금봉미술관이 30일까지 '금봉의 맥'(金峰의 맥) 세 번째 정기기획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금봉 박행보 화백의 제자들의 모인 '맥' 회원전이다. 길게는 4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박 화백과 인연을 맺은 회원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공개한다.

강종원·김영삼·김재일·김팔수·박태우·배선옥·백준선·양시우·위애자·윤영동·이병오·이부재·이정래·정재경·정정숙·조장현·한상운·허달중·허희남 등 회원 19명이 참여해 문인화 19점을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다양한 사군자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시원한 대나무 바람소리가 느껴지는 강종원 회원의 '바람 불어 좋은 날', 김영삼 회원의 '묵죽', 이병오 회원의 '맑은 바람'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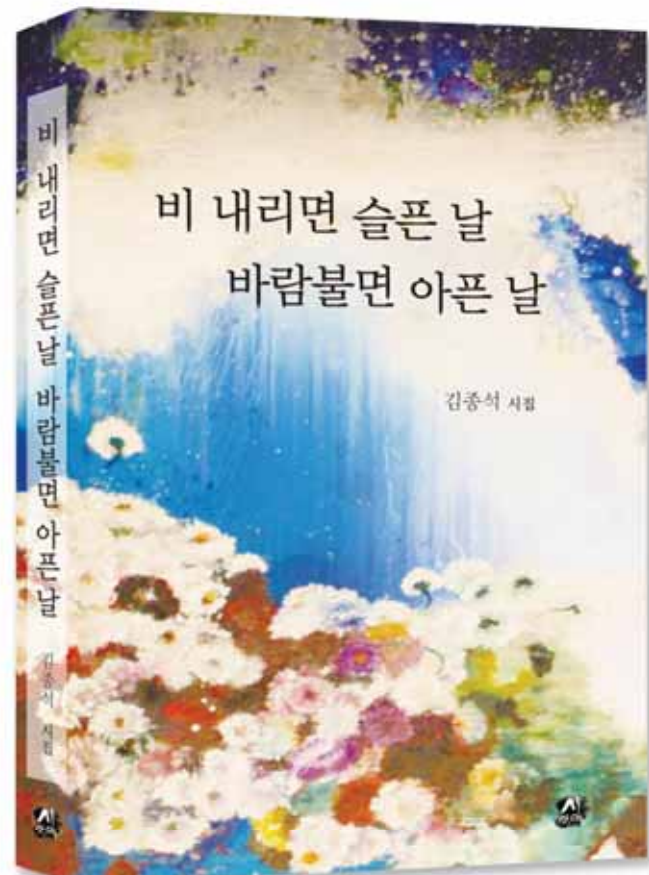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영취산의 봄'(김재일)과 산 아래 벚꽃마을을 그린 '도천시절'(김팔수)은 분홍색이 따뜻함을 자아낸다.

배선옥 회원은 먹으로 소나기와 폭포를 표현한 '소나비', 위애자 회원은 무궁화에 대한 존경심을 담은 '무궁화'를 출품했다.

윤영동 작가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대한민국도 하나가 되길 바라는 '베를린 장벽'을 작업해 눈길을 끈다. 문의 062-269-988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윤영동 작 '베를린 장벽'



양장본 · 198쪽 · 값 20,000원 시산맥 02-764-8722

비 내리면 슬픈 날, 바람불면 아픈 날

사랑과 이별의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슬픔, 고통, 죽음, 이별, 후회, 반성의 시편들과 함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장미의 외출중에서

김종석 시인의 시 속에서 내 젊은 날의 방향과 열정을 만난다. 시인은 지금도 '장미의 외출'을 꿈꾸며, '눈멀고 귀 멀어도, 나 거기서 죽겠' ('사랑했었네')라는 순수한 영혼을 만나고 있다. 또한 '밤이면 내 가슴에 별' ('별들은 내 발걸음 함께 하며')를 꽃피우며 '천상에 들려오는 노래처럼', '무릎을 꿇고 기도' ('별이 비워둔 곳을 향해')하는 어린 천사를 만난다. '누군가를 기다리며 피어있는' ('사막에 피어있는 장미꽃 한 송이') 장미꽃 한송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그녀가 나를 향해 달려왔던' ('바다가 달려온다') '우리에 절었던 옛 시절' ('나무')이 스르르처럼 지나간다. 시의 행간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움을, 두근거리는 설렘을 되찾게 해준 김종석 시인을 축하한다.

- 이정호(영화감독, 한국영상위원회 위원장)

조국의 산천을 떠나 먼먼 이국땅에서 모국어로 시를 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시심(詩心)의 바탕을 유지하면서 인생과 사랑과 대자연의 풍경을 자기화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본연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긴 여정이기도 하다. 김종석 시인의 이번 시집은 파란만장했던 지난 한 생을 지나오는 동안 누구보다도 '가슴 속 통증'의 세월을 보내었기에, '평생 한 여인만을 사랑'하며 살았기에, 인생이란 이름의 '슬픈 사랑'을 시편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는 '영원히 바람이고 싶었던 영혼'을 지닌 사람이다. 그러기에 그는 오늘도 '밤마다 뒤편에 울부짖던 대나무숲' 그늘에서 서성이고 있을 것이다.

- 이승철(시인, 한국문학평화포럼 사무총장)



김종석 시인

e-mail: kimjongsuk2500@gmail.com

- 작력
- 1977년 캐나다 이민
- 캐나다 한국일보 신춘문예 입성(시 부문)
- 캐나다한인문인협회 회원
- 2014년 계간 '시현상' 여름호로 등단
- 한국기독교문인협회 회원

- 시집
- 2014년 「나는 내 소리를 잃었네」 발간
- 2016년 「장미의 외출」 발간